아리셀 유족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로비에 앉아 “범죄자 박순관 조사 제대로 하라”

조연주 기자 | 승인 2024.07.26 10:18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직접행동에 나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25일 다시 참사 현장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오전에는 화성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인 가해자 에스코넥·아리셀과 박순관 대표이사를 교섭에 응하게 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교섭 재개를 위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족들은 오후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진상규명을 위한 전제인 희생자들의 고용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전관리 체계와 교육 등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더디고 미진한 부분, 희생자 가족들에게 전혀 보고,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항의 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는 소식을 접한 희생자 가족들은 즉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층 로비로 진입 한 후 연좌 농성을 개시하며, 박순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아리셀은
시간 끌지 말고
교섭에 나서라!
아리셀은
개별 합의 시도
즉각 중단하라!
박순관 대표는
책임있게
교섭에 임하라!
23명의 생명
앗아간 아리셀
규탄한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책임져라!
23명 고인들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교섭에 임하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족협의회 대표들과 마주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불법파견, 산안법 위반, 중대 재해처벌법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많이 익숙한 답을 내놓을 뿐이라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가 오늘 희생자 가족을 위해 제공했던 ‘모두누림센터’공간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희생자 가족의 퇴거를 통보했다. 대책위는 “이미 ‘모두누림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부 프로그램이 재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핑계로 유가족의 회복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화성시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일터에서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지자체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건설노동자들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추모와다짐 시민추모제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경기도와 인천 등 많은 산업단지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자신이 어디에 고용됐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도 모른채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이다.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또 다른 피해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건설노동자들도 이 문제에 같이 연대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훈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활동가는 “오늘 화성시청에서 유족을 향해 피켓을 든 사람들, 지원을 끊겠다며 유족을 협박한 화성시 책임자들, 5천만 원을 더 주겠다며 회유를 해왔던 회사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한 뒤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로 당신들의 가족 중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게 된다면, 꼭 노동안전시민단체를 찾고, 노동조합을 찾아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시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그리고 그때 당신들이 했던 모욕과 무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블루스카이 밴드 내 앙상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문화패’와 ‘공공운 수노조 경기예술지부’가 연주와 노래로 희생자 가족과 시민추모제 참가자들을 위로하고 연대를 다짐했다.

고 김재형 님 유족 고모부 공민규 님도 발언했다. “유족과 함께 주시기 위해 연대하러 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리셀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를 찾았다가 경기지청장과 면담을 했다. 수사 때문에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해 달라는 부탁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루 빨리 아리셀 대표가 죗값을 받기 원한다. 그래야 유족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게 힘이 되어주 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해 “유족과 함께 주시기 위해 연대하러 오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시민이라고 이 곳을 찾아온 분들과 다툼아닌 다툼이 있었다. 어제 대강당에 저녁때 회의를 하러간 사람들이 오늘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화성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유족은 가족, 형제, 자매, 자녀를 떠나보낸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지원을 끊으라는 피켓을 드는 이들이 있다. 화성시에 정말로 묻고 싶다. 정말 모른 일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